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이자가 오르면 오존금리로 내릴 때는 약정금리로
교육자금 주택자금 경로자금 노후생활자금 등 다양한 대용서비스 제공

국민은행

기존 동원기화보다 10배나 두꺼운 동주물기와는
한편 서공으로 300년 이상 연장합니다

대원동주물기와 ☎(02)739-8745/735-2344

명예회장/노태우/발행인 김관진/편집인 김광삼/논설고문 고은/편집국장 최정희/인쇄인 김규식/등록번호 다-3379/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 737-8881/편집국 722-4162 FAX 737-0698/광고국 737-0692/구독신청 737-0693
블기 2539년(서기 1995년) 4월 26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금주의 법구

상내는 자에게
되받아 상내는 것은
물지 않다 <삼유부경전>

법회 안내

도안사 (02)896-5936

초하루법회 매월 19일(음)
산중기도 매월 30일(음)
지장기도 매월 18일(음)
어린이법회 매월 첫째, 셋째 일 오전 11시

간남 포교원 (02)539-2631

어린이법회 매주 수, 일 오후 1시
학원부법회 매주 수 일 오전 11시
청년부법회 매주 수 일 오전 11시
일반신도법회 수, 일 오전 11시
교리강좌 월, 화 오전 10시 30분

선문사 (02)992-7064

초하루법회 매월 19일(음)
지장기도 매월 18일(음)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 10시
중·고생법회 매주 일 오후 1시
상연법회 매주 일 오후 3시

선문사 (02)992-9973

초하루법회 매월 19일(음)
보통법회 매월 15일(음)

대천포교원 (0584)654-6788

초하루법회 매월 19일(음)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 11시
중·고생보통법회 토 오후 3시
청년법회 매주 수 오후 8시
초장법회 셋째 목 오후 8시

일산 법동사 (0344)901-0877

산중기도 매월 19일(음)
안동기도 매월 15일(음)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가락법회 매주 일 오전 10시 30분
교리강좌 월, 화 오전 10시 30분
어린이한문교실 토 오후 3시
초장법회 셋째, 넷째 일 오전 10시

대구 관음사 (053)421-3700

가정기도 매월 1~3일 오전 10시
불일법회 매월 9일 오전 10시
비밀법회 매월 15일 오전 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후 1시
중·고생법회 매주 일 오전 11시
청년부법회 매주 토 오후 7시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
할·포교담당 전화(722-
4162) 팩스(737-0698)로 연락
바랍니다.

구독료납부은행지로
3054161

“차별 심하다” 이구동성

조계종 중진 비구니스님 연수... 기초선원·종무행정 참여 요구

조계종 중진은 중진이 비구 비구니 쿠바에 쿠바의 4부 대종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자율성과 비교해 보면 비구·비구니스님은 앞바퀴 돌, 쿠바에 쿠바는 뒷바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바퀴가 튼튼하고 균형이 맞아야 자동차는 잘 굴러갈 수 있다. 그런데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거대한 자동차의 앞바퀴 소입종 하나를 맡고 있는 비구니스님들이 의외로 깊은 소외감과 차별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19일 정도 운문사에서 열린 2차 3일간 연수를 끝낸 비구니스님들이 67명의 참가자들은 연수의 소감과 중진에 바라는 점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써냈다.

비구니스님들이 승려수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여러 면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수차례 지적해 왔다.

그러나 교계 최초의 비구니스님들의 연수에서, 그것도 한국 비구니스를 이끌어 가는 중진 이상 스님들의 연수 모임에서 이렇게 사실 스님들이 자신이 직접 작성한 소감문에서 또 한번 작나라에게 드러난 것이다.

“항상 다른 중진 또는 신도

를 보다도 더 무시를 당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비구니스님도 있었다.

스님들은 총무원장이나 본사주지를 선출하는데 있어 비구니스님들이 제외되고 있다는 점과 종무행정직에도 임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더구나 종단행정에서 권이나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다는 예로정도 토로하고 있다.

그리고 중진에서 비구니스님들을 배려, 女行者교육은 비구니스님들이 맡고, 비구니스님들을 위한 기초선원도 마련해 줄 것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비구니스님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노후대책, 이것은 첫날인 17일 총무원장 스님과과의 간담회에도 제기되었다. 새 집행부가 들어올 때 마다 중기처럼 요구해 왔지만 번번히 뒤로 밀리고 있어 아쉽음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

이번 연수에도 ‘지방자치 실시에 대한 불교의 대처방안’이란 주제로 한국사회의 정치·사회적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묻는 강의와 함께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불교계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과 토의시간을 가져 스님들에게 유익했다는 평가를 스스로 내리고 있다.

연수의 필요성과 실사에 대



“학인시절로 돌아갔어요” 비구니스님들은 비구니스 위주로 된 중진의 여러 정책에서 깊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사건=박재원 기자)

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연수 내용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다. 사권에 논의를 거쳐 좀더 비구니스님들의 피부에 와 닿고 현실 당면한 주제를 정했으면 모처럼 하는 연수가 보다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참가 스님들의 소감이었다.

(운문사=이경숙 기자)

종단협 거듭나기 모색

정관개정...분과위·자문단 구성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월주스님)가 새로운 변화를 위한 거듭나기를 모색하고 있다.

종단협은 지난 19일 제30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활동 강화회 위한 정관개정 △분과 위임회·자문단 활성화 △4·8여의도 봉축행사 건립을 논의 확정했다.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22대 종단 대표자 및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기존의 3명이던 부회장을

승려 인권문제 연 내달 발족

권익·복지대변...소장에 범산스님

승려들의 권익과 복지를 대변할 연구소가 발족된다.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 공동대표), 범산스님(스님 10여 명은 지난 18일 대각사 대웅전에서 ‘승려인권문제 연구소’ 창립 발기인대회를 갖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진관스님은 “비록 수행자라도 오부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지위로 침수해 부처님 이름을 살탈할 기회를 주지는 취지에서 본 연구소를

평불협 남북법회 대표 지난 21일 평양에 파견

평불협 미주본부(회장 도안스님)는 지난 21일 제2차 남북해외불교지도자 대법회 및 간담회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 대표를 북측에 파견했다.

이번 남북은 지난 8일 LA 수도사에서 열린 미주본부 임시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평불협 미주본부 상임부회장 지현경사(진각종 LA포교원장)와 상임고문 정산스님(수도사 주지)이 방북길에 올랐다.

실무대표단은 또 방북기간 중에 ‘평불협 미주본부 북한 상지순례단’의 방북의사도 타

일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법인 사무처장 수완스님과 기획실장 금정스님이 중앙승가대 현황과 발전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열린 강연회에서 김진현씨(경 과학기술처 장관)는 “규율하는 사대를 불교가 이끌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 교육인 승가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사사령

박병근
명 부산주재 기자
이운호
명 대구주재 수습기자
(4월 17일부)

목어

원로스님들은 대중의 정신적 지주다.

지난 19일 <고승열전> 출판 기념회가 열린 프레스센터 20층에는 청담·효봉·동산·용성 등 근대 고승 열분의 사진이 모셔졌다. 그리고 그일에 스님들의 생애와 가르침이 담긴 <고승열전>이 후학들에 의해 봉정됐다. 일본 콘스님의 법취가 식장에 감동했다. 스님들은 가뉘어도 그 법음은 큰 산처럼 살아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때로는 법어와 화두로 때로는 주장자로 눈과 귀를 열어 준다.

같은 날 운현궁미술관에서는 석주스님의 선묵전이 개막됐다. 석주스님이 운산에

한 심정중 절보사에서 포교와 교육에 전념했다. 그러나 이제 90을 바라보는 스님은 산사를 그리워하나 비망히 주석할 곳이 없었다. 한 재가자의 딸 사주로 복지원을

할 뜻이 담겨 있다고 본다.

또 한분의 노스님이 요충 화재에 오르고 있다. 청화스님이다. 대중은 청화스님 하면 태안사를 떠올린다. 그런데 스님이 권속들을 데리고 태안사에서 나왔다. 곧 미국 살보사에 가서 3년 결사에 든다는 소식이다.

“수행인이 살림을 오래 살면 공부에 지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청화스님 문도들이 질문 나온 이유다.

“귀비인데 어떻게 아셨습니까?” 총무원 직원의 말이다. 왜 귀비였을까.

노 스님들의 고향

세우게 된 스님은 평생 살아온 곳에 힘을 주었다.

승가대를 위해서 선묵전을 열었던 스님. 그때와 달리 이번에는 스님 스스로 전지를 준비했음을 강조했다. 그 말속에는 우리가 감지해야



북대기산은 오대산 월정사(精舍) 국산·성문사(聖門寺) 서울 정교회 서울 기안구역 부산 천가산호텔

전통기와의 멋과 품격을 풍산 한식숯기과가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풍산 한식숯기과는 전통을 소중히 하는 사찰, 고건축물 등 한식가옥과 주택의 미를 추구하는 기념건축물, 일반 가옥 등에 잘 어울리는 지붕재입니다.

■ 내식성이 뛰어나 수명이 반영구적입니다.
풍산 한식숯기과는 사공후 좋은 시간대에 표면이 차광된 조직의 산화막을 형성, 부식을 막아주므로 수명이 반영구적입니다. 또한 내후성과 방수성이 뛰어나 어떠한 기후 조건에 변화에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 눈, 비, 바람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해 줍니다.

■ 고색상연한 색상과 전통미를 재현했습니다.
풍산 한식숯기과는 동관 특유의 색상변화에 따라 시간이 흐름수록 중후한 색상을 이루어 건물에 고색상연한 멋을 더해줍니다. 여기에 동관의 우수한 가공성을 이용, 우리나라의 전통적 원형과 정신미를 완벽하게 재현함으로써 고유한 멋을 그대로 살려주었습니다.

■ 시공이 간편하고 경량입니다.
풍산 한식숯기과는 주요 기와부품을 기계 가공에 제공이 규격화되어 있으며 환전조립식으로 시공이 간편합니다. 또한 기와의 중량이 10kg의 1/3정도이며 무게가 가볍고 단열에 유리함을 주며 습도를 낮춥니다.

뛰어난 내식성과 내후성, 중후한 색상, 완벽하게 재현된 전통미 그리고 시공이 간편한 풍산 한식숯기과로 현대건축물에 전통가옥의 멋과 품격을 살려보십시오.

株式会社 豊山
전화 : 273-3021/9 FAX : 273-3835